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 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투고처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하이텔(ID):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khunews

정부의 과외 제한정책

가치관적 해결 필요

얼마전 신문에서 불법과외의 대처방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교육개정위원회에서 내세운 주요방안에는 전면금지, 전면허용, 절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중 전면허용에 의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교과위에 따르면 과외를 전면허용하면 과외도 하나의 상품처럼 인식되고 시장은리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어 결국에는 불건전한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한창 입시준비에 바쁜 중·고교생들에게 과다한 입시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대확문화에 끼칠 영향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파소비 풍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외가 전면허용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분명 과외비는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과외자리를 구할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과외도 분명 고도의 정신노동이긴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게 사실이다. 즉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원리(?)가 성립된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대학생들의 파소비 풍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려나간다면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즉 학생의 입장에서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가치관의 혼란·우선순위의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과외나 그외의 아르바

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고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채수강

(경명 2)

농구시설 방지 유감

체육 환경 개선 필요

어느덧 따스한 봄이 성큼 우리앞에 다가왔다. 겨우내 실내에서 움직이던 학생들이 대부분이 실외에서 사색과 운동을 즐기곤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한 시설이 부족한 면이 보인다.

현재 공대와 자대 2군데 설치된 농구장은 농구시설이 문제이다.

공대 농구장의 경우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편안하게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자연대의 경우 조명등도 없을 뿐더러 코트위의 포장도 안돼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구대의 방지 이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하루속히 쾌적한 곳에서 농구를 하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다.

김중수

무리한 제도 개선

부작용 조속히 해결해야

‘인론 매체론’장을 들고 있는 학생이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이고 수강신청 또한 힘들게 했던 강좌인만큼 내가 듣는 어떤 과목보다 열심히 듣고 싶었고 애착이 많이 생겼

다. 그러나 첫 수업시간부터 나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강의내용이나 교수의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공간의 문제였다. 약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에 9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수강을 했다. 물론 몇몇의 학생들은 신문을 강의실 바닥에 펼쳐고 그위에 앉아 수강을 하는 학생이 있었다. 심지어는 강의도중 밖으로 나가는 학생도 있었다.

올해부터 실시된 학부제와 최소전공학점인정제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인기과나 인기강좌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강의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학구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두 제도였지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학교의 어떠한 장치적 노력도 없었던 것은 우리는 학교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졌다.

성숙한 제도의 시행은 그 제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신속한 대처나 해결방안이 나오기가 힘들기 마련이다.

이번과 같은 강의실 부족현상도 학교가 그 제도 시행에 따른 대외적 성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내실있고,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시간에 쫓긴 졸속행정의 산물일 수 밖에 없는 제도였다.

학교는 이런 강의실 부족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학생들 또한 수업권에 대한 요구를 하나의 목소리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전지영

(생물 2)

아침 스쿨버스 이용 불편

함께타기운동으로 보완

아침 수업을 듣기위해 수원역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길게 늘어선 학생들의 줄이다.

아침마다 이른바 ‘출석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스쿨버스의 배차시간은 길게만 느껴진다. 버스에 매달리고 짐처럼 실려서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아침 출근준비는 버스가 제시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특수한 지리적 위치가 교통정체에 한몫을 보태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계시간에 도착 못하는 버스 안에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수업은 이미 시작되거나 결석처리이다.

이러한 사정을 학교측이 모르는 것은 아닌듯하다. 나름대로

로의 대책을 마련하지만 지리적인 문제는 어쩔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교통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걸까. 학생들의 지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요즘 들어 문제가 되고있는 주차문제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측이나 학생회측이 주도하여 함께타기운동을 벌이는 방법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겠지만 문제의 보완책은 될수 있을 것이다.

학교나 학생회측이 학생, 교수, 직원을 관리하여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들의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교, 교수, 직원 삼주체의 화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지석

(유전 2)

쓰레기장된 캠퍼스

주인의식 결여 유감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라면 단연 농구를 꼽을 수 있다.

우리학교도 대운동장 농구장에는 항상 많은 학생들이 농구를 즐긴다. 젊음과 패기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농구경기는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보는 것도 나름대로 흥미가 있다. 그러나 농구코트 주변을 보면 농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

성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음료수, 종이컵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다. 담배꽂초는 더욱 많이 눈에 띈다. 학생들은 농구를 하고 잠시 쉬 때, 서로를 막을 식히고 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먹는다.

그 다음 뒷처리 문제다. 각자 먹은 음료수병은 나물라라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들고는 일이 귀찮아서 그럴 것이다.

비단 농구장에서만이 아니다. 쪽돌터 보면 담배꽂초는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띈다. 심지어 휴지통 주변에도 쓰레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배우는 학생으로써 그리고 흔히 지성인의 보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가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김영대

(생물 2)

홍보물로 몸살앓는 나무

자연보호의식 아쉬워

학교를 오가면서 느끼는 봄기운은 모든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조경을 간직한 우리학교는 그러한 봄기운이 더욱 만연하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려주는 학교의 자연환경에는 봄 꽃 피어나는 나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찌 그리 소홀한지.

파릇파릇 피어나는 잔디를 짓밟고 서 있는 불법주차차량들, 나무의 가지 사이로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플랑카드 등등이 이러한 것들이 봄의 전령사를 죽이고 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누구나 진심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가 없는 듯 하다.

겨울 방학을 하기 얼마전 학교측에서는 나무심기를 하였다. 물이 어는 추위 속에서의 나무심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학교측의 이러한 나무심기는 신입생을 위한 걸치였다고 한다.

이런 무심한 자연파괴(?)의 행동은 학생과 교수님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잔디밭 불법주차와 담배꽂초 버리기 등등.

우리학교는 대·내외적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해지기 위한 자연보전과 가꾸기는 아니었지만 자연보호와 더 나아가서는 학교홍보에까지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우리의 무심함으로 망가져 버려서야 되겠는가?

학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서로 노력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김지열

(생물 2)

인간의 미래, 사이버 공간

을 통해 우리의 사상과 욕구 그리고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면서 우리 전지구적인 연대감마저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공간은 우리 사회의 열린공간이 되고 있으며, 젊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거대한 동력의 하나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를 위한 많은 요소들이 이 공간에서 싹트고 있으며, 때론 아날로그적 사회에서 실패한 요소들이 이 공간으로 유입되어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라고 해서 곧 ‘좋은 것’만 옮겨오겠는가. 이 공간에도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 그리고 편견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언론에서 떠들썩이 사이버공간은 공간과 시간의 장벽이 없는 곳으로 사회의 골칫거리들이 속속이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중 이미 자신의 굳건한 성을 쌓은 곳은 바로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들은 ‘사이버

섹스’의 가능성마저 엿볼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성(sex)의 유흥’으로 무장하기 위해 온갖 최신 기술들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은 벌써 사이버공간에서도 자본주의의 꽃을 가장 먼저 피우고 있다. 야후(yahoo)나 알타비스타(Altavista)같은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이 1위가 ‘sex’이고 보면 이 공간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성을 파는 곳’이란 얘기다. 인간의 미래공간, 공동체와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대두하여 할 사이버공간이 벌써 악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점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공간들을 내버려둬 인간, 야마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공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 버릴 수 없고, 버려질 수도 없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간을 지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다. 사이버공간이란 특성상 기존의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사이버공간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관념이나 법률등에 의해 지배 받기를 거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사이버공간답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토론과 설득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이 공간은 자정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가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었지만 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마저도 뛰어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 공간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공간이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 (여결)

장애인 특례입학제도에 대한 조언

열린교육의 장 되기를

저편에 그들이 있다. 그들은 기쁠때 웃을 줄 알고, 슬플때는 눈물도 흘린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선상에서 생활한다. 지금 그들중 한명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편집자)

저는 작년에 장애인 특례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입학 당시 제 장애와 학교 여건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측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보았고, 학교 측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금까지 무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했던 대학 중 유독 우리 학교만이 작년, 재작년을 끝으로 보류상태로 들어갔다고 하니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받아만 놓고 시설이 따르지 못한다’는 총학생회 측의 빚을 짊어지는 건의에 따른 학교측의 도의적 책임감으로 내린 결정이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과거 실력이 되었음에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특례입학이란 제도는 가문에 만난 시원한 샘물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꿈과 희망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제도가 한편에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불안이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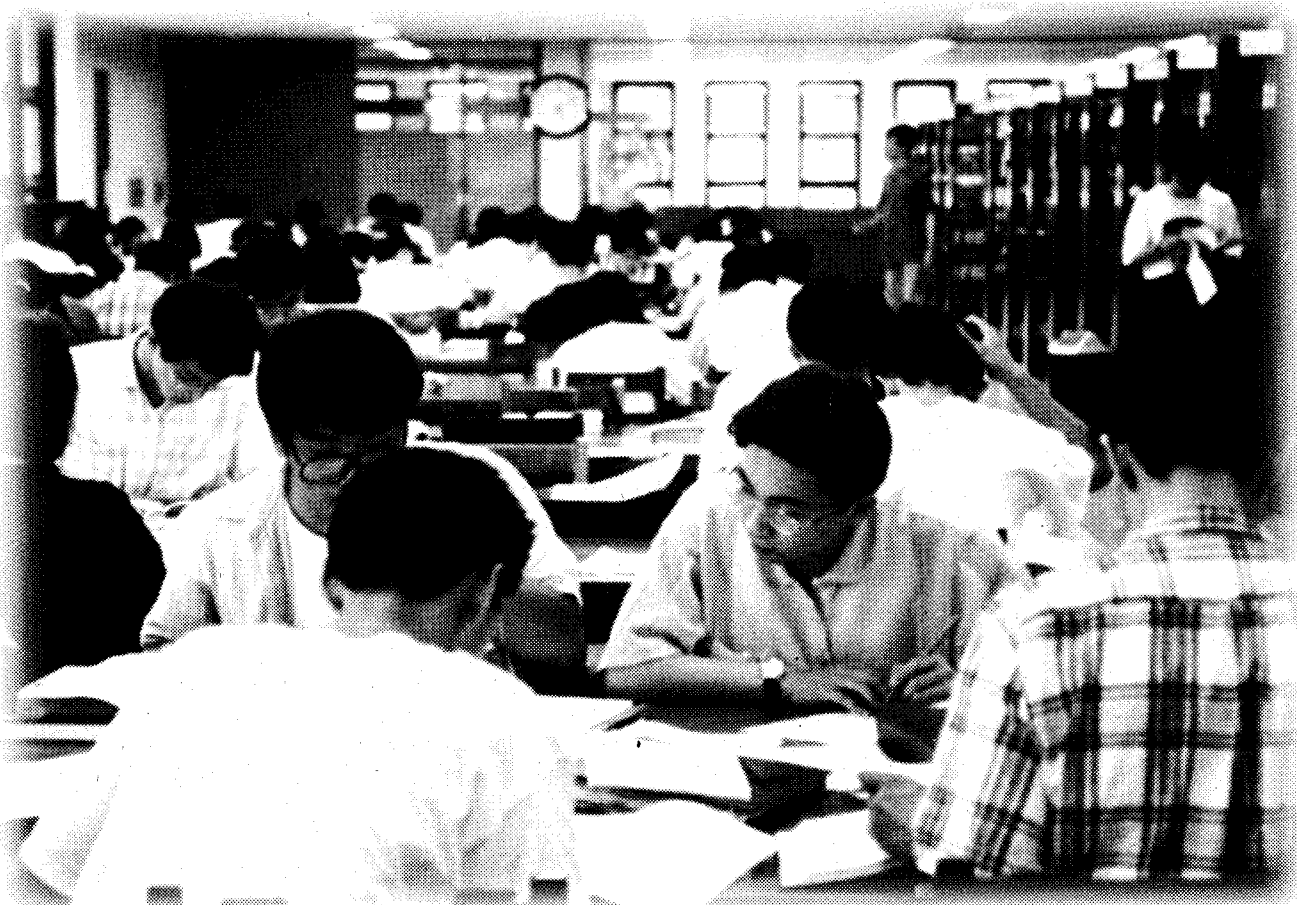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학교 어느 과를 희망하고 있던 이들에겐 꿈이 꺾여지는 것일 겁니다. 저희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시설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설은 구비되면 좋지만 부족해도 감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이 환경에서 적응 가능한 사람만이 라도 몸담아 공부할 수 있는 열린 학교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신체조건이 다르니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공부만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장애 학생들의 기쁨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지금은 장애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서로의 정신, 육체적인 것을 보완하는 도움과 우정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을 꺾지 말고 더 키워주세요. 우리 학교가 모든 이들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주는 학교로서 선두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은영

(국문 2)

POSCO메시지 면학편



기적을 낳는 참된 보배?

보석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나고 왕이 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왕자는 보석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막내인 다르마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진리의 보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빛 가운데서도 지혜의 빛이 가장 밝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생동안 진리탐구에 정진했던 그는 훗날, 인간사의 참 의미를 터득하는 남인도의 대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보배가 있지만 진리탐구의 보배야말로 평생 간직하고 다녀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진정한 보배일 것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

포항제철